

안전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자와 근로자의 역할

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경영학박사

1. 안전관리의 발전적 개념

기업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안전관리란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보전차원에서 벗어나 경영손실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되고, 나아가 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작업장내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제거하는 노력까지를 의미한다. 이처럼 왜 안전에 대한 개념과 관념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방식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종전의 육체노동에서 기계화로, 나아가 자동화됨으로 인해 사고발생시점과 장소의 예측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업을 둘러싼 기술환경의 변화도 안전관리에 대해 재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새롭고도 다양한 기계 및 설비의 도입은 그에 따른 작업체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귀중한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은 물론, 건물 및 설비의 파괴에 의한 재산손실이나 기계고장 등 이상방지조치가 적극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전관리에 대한 발전적 개념은 '작업 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위험요소 및 환

경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는 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실천하려는 종합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안전경쟁력의 국제수준과 정책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서는 사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들이 수없이 발생하여 기업경쟁력의 약화는 물론, 행복한 보금자리인 가정마저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96년에는 모두 7만1천5백48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여 '95년의 7만8천34명에 비해 8.31% 감소하여 재해감소세를 유지하였지만 사망재해자수는 2천6백70명으로서 전년보다 오히려 8명이 증가했다. 또한 사망만인율도 3.27로 전년의 3.37에 비해 0.1% 감소하는데 그쳤다는 점이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산업재해예방을 국가경쟁력 혹은 기업경쟁력 차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안전관리자육권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안전향상을 위한 지원대책 강구, 안전소홀로 인한 산재발생시 기업주 처벌강화 등 산업재해방지대책을 실시중에 있다. 특히 미국의 전반적인 산재율 및 산재건수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지만 그 추세를 더욱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산업안전보건개혁법’을 ’95년에 제정하여 산재 사고가 적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면제혜택’과 ‘자율안전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기업을 방문하여 안전관리점검 및 산재방지대책을 자문해 주면서 경비의 90%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안전대책 마련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부담금을 최고 60%까지 감면하는 ‘중소기업자문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90년대에 들어와 전산업의 산재도수율, 예컨대 100만 노동시간당 산재건수가 2.0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의 산재도수율은 대기업의 0.5보다 훨씬 높은 3.2로서 전체 산재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안전수준제고를 위해 설비 및 공정을 개선하는 기업에게는 경비의 5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안전촉진제’를 신설하고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의 주관하에 중소기업의 산재방지활동을 점검하는 안전관리활동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싱가포르는 고층빌딩이나 아파트형 공장이 많은 도시국가라는 특성때문에 산재사고의 84%가 낙하 및 추락사고이다. 따라서 산재안전관리강화를 위한 ‘공장법’을 대폭 개정하여 안전감독범위를 근로자 10인 이하의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및 기계,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작업장까지로 확대하고 산재사망자 발생시 벌금 2천5백만원 혹은 징역 1년이던 처벌법규를 벌금 1억원 및 징역 1년으로 강화하고 병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독을 면제하고 안전모 및 안전화의 착용, 빌딩 외벽 청소, 사고시 처리절차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방지대책 및 추진은 산재문제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 인권사항일 뿐만 아니라 생산성, 작업능률과 관련된 안전경쟁력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착안된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부도가 속출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산업현장에서는 각 부문의 ‘경쟁력 10% 높이기’를 추진하는 동시에 또한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의 작업현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안전사고들이 계속 발생하여 기업경쟁력의 약화는 물론, 행복한 보금자리인 가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사업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노사로 하여금 산재감소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자율적 안전관리’와 산재예방활동을 병행하여 안전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좀더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97년에 산재목표재해율을 0.7%선으로 정하고 사망만인율이 1.99에 접근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3. 산재예방의 삼위일체

우리나라는 ’80년대 이전까지 경제의 양적 성장에 치중한 관계로 인하여 산업안전에는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그후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생산기술의 혁신, 노동시간의 개편, 근로자의 의식변화 등으로 인하여 관심이 증대되고 대외적으로도 경제수준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제고의 필요성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관한 노력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정부에서는 산업재해가 근로자 자신 및 가정의 불행과 국가경제면에서 커다란 손실임을 인식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산업안전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영자는 자나깨나 산업안전에 집념을 가질 때 산업재해

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노력의 99%를 예방활동에 할애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근로자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직장에서 땀흘려 일하고 또한 기업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행복추구와 기업의 이윤극대화는 조그마한 사고때문에 수포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는 개개인의 행복을 실현시켜 줌과 동시에 기업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빨리 빨리 문화'가 현장 곳곳에 깊숙히 스며들어 있다. 작업현장의 관리감독자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빨리 하라"고 독촉한다. 근로자들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적당주의 내지 대충주의에 젖어버렸으며 정밀성 내지 치밀함이 요구되는 작업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원칙과 절차가 무시될 수 밖에 없다. 옛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원칙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지혜를 되찾는 일이 안전관리의 첫걸음일 것이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사람, 교육, 시설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며, 특히 방심한 상태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다각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컨대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H빔을 들어 올릴 때 반드시 사전지도가 있어야 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여야 한다. 착용하는 것이 귀찮다고 함부로 방치해 두면 자신의 생명을 위험속에 내모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기 때문이다. 또 작업하는 장소가 어느 곳이든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을 책

임지는 관리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특히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 선진국의 기업들은 현재 극히 낮은 산재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을 교훈삼아야 한다.

4. 건설재해의 감소방법과 사례

'96년의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손실은 6조7천 67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조1천88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산재보상금도 1조3천5백53억원으로서 전년보다 2천2백17억원이 증가되었다. 물론 산업재해율과 재해사망자의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바, 즉 '97년 1/4분기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5백99명으로 전년동기보다 19명이 감소하였지만 건설업계의 사망재해자수는 1백73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오히려 18명이 증가했다. 이같이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오히려 증가된 이유로는 도로확장, 지하철공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 건설물량자체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추락, 낙하, 붕괴 등 재래형 재해가 70%를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경역자 및 근로자의 안전불감증이 더 큰 요인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경기가 나빠지면서 건설업체마다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자율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탓도 있다. 지금은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건설업의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재해감소방안을 수립하고 작업현장에서 안전확보를 모색해 보자.

1) 현장별 목표관리

K사는 최고의 경영목표를 재해율 낮추기에 두

었다. 그 방안으로써 현장소장 전원이 참석하여 안전다짐대회를 갖고 현장별로 목표재해율을 부여하는 등 철저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96년에는 재해율 0.3%를 달성하여 당초 목표했던 0.5%를 초과달성했다. 이처럼 안전관리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유는 독창적인 안전관리기법을 개발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것과 철저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천해온 데 있다. 예컨대 안전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각 현장마다 적어도 월 1회씩 미비한 안전시설의 보완, 불안정한 작업방법의 개선, 철저한 개인보호구 착용, 현장정리정돈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소장 이하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2) 삼행운동

B사는 재해율 제로(0) 포인트 달성을 위하여 '안전장구 착용 후 행동', '안전시설물 설치 후 행동', '정리정돈 후 행동' 등 삼행운동을 적극 실천해오고 있다. 재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추락, 낙하 등 재래형 중대재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형틀, 철근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사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무재해 안전사업장의 구현에 적극적이다. 특히 분기별로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제1분기에는 해빙기의 안전사고 예방, 제2분기에는 추락 및 낙하 등의 재해예방, 제3분기에는 투입장비의 안전관리, 제4분기에는 동절기의 안전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B사는 안전관리 책임전담제, 안전순회반, 산재추방위원회, 무재해포상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인간존중의 경영

L사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에 충실할 경우 중대재해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개월마다 한번씩 안전보건관리위원회를 최고경영자가 직접 주재하여 안전보건관리문제를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의 최일선에 나서고 있다. L사의 안전관리활동은 크게 상벌제도, 무재해운동, 안전교육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활동을 평가하여 안전관리 우수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도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수의계약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무재해운동은 협력업체별, 사업본부별로 안전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련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삶의 질적 향상은 건강권과 생명이 보호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생각치 않는 경영을 하지 않는다.

4) 겹겹이 안전운동

S사는 인간존중 이념에 자동안전장치(fail safe)개념을 적용시킨 '겹겹이 안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 두고 매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 실태를 분석하고 대책협의 및 해결방법을 논의한다. 그 결과 산재발생으로 인한 손실절감액이 2억2천6백만원에 이르고, 또 안전관리를 통한 원가절감액은 무려 25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매출액의 약 2%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협력업체의 절감액도 약 16억원에 달하므로 그들과 함께 안전관리를 경영에 접목시키고 있다. 이러한 겹겹이 안전운동을 비롯하여 협력업체 안전관리 평정제도, 눈높

이 안전지원지도 등 다양한 안전관리기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5) 인명은 안전확보

H사는 도급한도액 2천1백7억원, 국내 도급 순위 61위의 중견건설업체로서 올해 재해를 0.3%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효도를 사훈으로 하고 있는 이 회사는 '인명은 재천'이 아니고 '인명은 안전확보'라는 구호를 외치며 다양한 안전관리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고경영자 직속하에 안전관리부를 설치하고, 최고경영자는 물론 현장소장, 공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계책임자 전원이 참석하여 분기당 1회씩 '현장순회 사고방지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고경영자와 일선 현장소장간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최고경영자는 늘 "안전관리활동에는 한치의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안전관리의 성패는 전임직원의 투철한 안전의식과 일체감 조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H사는 안전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인사과과에 반영하고 또한 현장단위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포상제도 중에 안전관리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혜택비중을 가장 크게 두고 있다. 지난 '96년 4월 이후 한건의 산재사고도 없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6) 기업문화 인식 및 공존공영체제

S사는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관리기법의 전수와 각종 정보교환 등을 통해 안전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에 있어서는 안전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기업문화로까지 정착시키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지킴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말로

만 하는 안전관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사고에 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철저한 사전확인'을 하는 것이다. 작은 개구부 하나를 만드는 데도 수십번의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자체가 사고를 많이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안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안전을 생각하는 관심은 안전관리 추진기법이나 안전시설 등을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생기게 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의 안전관리는 본사 - 현장 -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자율관리의 획기적인 체계를 필요로 하는데, S사의 경우 하도급 비율이 60% 이상으로서 협력업체와의 효과적인 업무공유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며 공존공영적 차원에서 협력업체의 안전지원 및 유도에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 및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와 본사는 안전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전문교육 및 대표자간담회를 통하여 적극적인 안전의식고취 및 예방관리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또 협력업체와 공사계약시 실질적인 안전관리비 계상을 통하여 자율안전관리기반을 정착시키고 있다. 안전활동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수의계약과 입찰제한 등의 신상필벌을 시행하며 안전교육용 교보재 지원으로 각종 교재 및 공중별 폐도는 물론 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근로자 시청각 교재인 안전영화 2편을 제작 및 배포하여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이 회사의 안전을 맡고 있는 관리감독자는 술선수범하여 말보다는 직접 행동으로 보이고 형식적인 안전을 배제하면서 건설현장에 적합한 기법을 도입하여 안전관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몇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공중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간 사전안전계획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를 안전공정표라고도 하는데 원청 및 하청 관리 감독자가 안전공정회의를 통하여 작업전에 안전 시설 및 장치를 설치하고 또 상하 동시작업이나 위험작업시에 해당 공종의 관리감독자나 안전담당자가 입회하여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아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 건설현장에는 추락, 낙하물, 감전 등이 사고의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고들만 중점관리하여도 건설현장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위험포인트관리현황판을 제작하여 현장출입구에 게시하고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주요 위험포인트를 기록함으로써 당일의 위험요소를 작업전에 현장직원 및 전근로자들로 하여금 인지케 하여 재해를 줄여보고자 하는 방법이다.

셋째, 일일안전 사이클(cycle) 활동의 실천이다. 지금까지의 일일안전 사이클 활동은 작업전에 전근로자가 참여하여 경직된 몸을 풀기 위해 안전체조를 실시하고 공종별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가 해당근로자와 함께 위험예지훈련을 실시하고 작업에 들어간다. 신규투입자는 별도로 안전교육장에 모여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안전모에 교육이수 스티커를 붙이게 된다. 그리고 오전중에 현장여건에 맞게끔 현장 소장, 안전관리자, 공종별 관리감독자, 협력업체 소장과 함께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당일 및 익일의 작업내용과 안전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안전회의를 실시한다. 특히 정리정돈은 건설현장의 기본이라는 취지하에 작업종료전 공종별로 작업한 장소를 정리정돈하고 있다.

5. 경영자와 근로자의 역할 및 맺음말

안전관리란 경영자가 작업장을 안전하고 위험

성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 중의 불안감을 없애주고, 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성을 배제하여 재해 혹은 사고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에 의한 위험발생을 제거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안전관리는 작업현장의 모든 위험한 요소 및 환경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의 양적 성장에 치중한 관계로 인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하였지만 앞으로는 대외적 경제수준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제고의 필요성과 통상규제의 수단으로까지 대두되는 산업안전때문에 경영자의 의식과 행동이 종전과 달라져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 및 가정의 불행과 국가경제적 손실의 요인임을 인식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안전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경영자는 자나깨나 산업안전에 대한 집념을 잃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 '산업재해란 예방될 수 있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또한 노력의 대부분을 사후처리보다는 예방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근로자의 행복과 기업의 이윤극대화하는 조그마한 사고때문에 수포로 돌아가 버릴 수 있으므로 안전이란 개인의 행복실현 및 기업발전의 토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안전을 위해서는 사람, 교육, 시설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경영자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특히 무의식속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조치들은 안전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진국의 기업들은 현재 극히 낮은 산재율

에도 불구하고 안전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국가 및 경영자도 안전경쟁력을 향상시켜 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작업현장에서 무해재가 지속되면 일하는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고 또한 안전한 작업장에서는 일하려는 근로자들의 욕구가 더욱 강렬해질 것이므로 그에 부응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작업에 임할 경우 당연히 작업생산성도 향상될 것이고 품질도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첫째, 자율적인 안전관리이다. 근로자는 신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확인, 점검, 개선의 연속적 추진이다. 관리자는 탁상공론식의 계획만을 수립하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근로자의 행동을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쾌적한 작업현장의 구현이다. 정리 및 정돈은 안전의 기초라는 생각하에 항상 쾌적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매주 특정요일을 '정리정돈의 날'로 정해 운영함과 동시에 작업 후에 반드시 현장을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불량품이 발생될 경우에는 재생산하여 완성품을 만들 수 있지만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작업시 안전은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완벽한 품질은 안전이 밑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하에 현장밀착 안전관리를 통하여 안전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우리의 산업현장에서는 오늘도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안전하고 밝은 사업장을 조성해 주려는 경

영자와 그속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근로자의 욕구가 합치되어야 한다. 기업은 안전제일주의를 추구하는 듯한 기업이미지를 표방하고 안전에서도 세계일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가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돌보면서 안전하게 작업하려는 욕구가 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안전을 위해 '그린스마트(Green Smart)' 4단계운동을 도입할 경우 사고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즉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의 통제 및 규제, 근로자에 대한 3회 경고 후 작업장 출입금지, 위험돌발시 작업중지, 사고예방에 대비한 대책 등이 그 주요활동이다. 최선을 다하면 안전은 분명히 보장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사고를 내고나서 후회하기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자들은 자기 가족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모든 건설업은 안전을 위하여 인간중시경영과 최고의 품질 및 안전 구현이라는 경영방침을 정립하여 사업현장 전반으로 파급시킬 필요가 있다. 또 안전을 위한 제도정립뿐만 아니라 경영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하는 현장밀착경영이 안전관리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외에도 권역별 안전관리팀제를 도입하는 등 자신의 회사에 맞는 독창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 특히 건설현장이 점차 대형화 및 다양화되면서 더불어 취약해지고 있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근로자와 더불어 일체감을 형성하여 건설재해에 적극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